

강의 자료  
강연자: 이형대(고려대)

## 참된 벗 사귄이란 무엇인가?

-18세기 조선지식인 박지원의 友情論

### 1. 18세기 우정론의 성립 배경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詩文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 일생을 통해 몇 번쯤이나 될까?(이덕무, <선굴당농소>)

진정한 친구를 만나 속 깊은 말을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한탄한 18세기 지식인 이덕무의 글이다. 그렇다면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당대 조선의 문제적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옛날의 이른바 선비[士].농민[農].공장장이[工].장사치[商]가 아닌 데도 명분의 유평가 넷이다. 다만 좋다고 여기는 바가 같지 않을 뿐이건만 견해 대립의 격렬함은 진나라와 월나라보다 심하고, 다만 처지가 다를 뿐이건만 차등을 두어 신분을 비교하는 것은 중화[華]와 오랑캐[夷]의 구별보다 더 엄격하다. 입장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서로 이름을 들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으며, 신분의 위계에 얽매어 서로 교류를 하면서도 벗으로 삼지 못한다.(박지원, <회우록서>)

이 글에서 박지원은 참다운 친구 사귀는 방해하는 요소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선조대 이래 치열하게 전개된 당파싸움과 봉당정치이고, 또 하나는 완고한 봉건적 신분질서이다. 이것들이 평등한 인간관계에 기반한 참된 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종래의 관념적인 우정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율곡 이이는 “벗이라 하는 것은 뜻(志)을 벗하고 道를 벗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어려서 竹馬故友로 지내거나 글방에서 함께 글을 읽던 각별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朋友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순수한 인간정신의 결합만이 참다운 우정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천년 전의 사람을 벗한다.’ 또는 ‘천년 후의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는 ‘성현의 道를 벗하여 성현들과 교류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박지원은 이러한 논리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천년 전의 인간은 이미 죽어서 흩어진 먼지, 차가운 바람이 되어 버렸는데, 무엇이 나를 위하여 제2의 나가 되어주며, 무엇이 나를 위하여 周旋인이 되어준단 말인가? (...) 답답하게 千古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막막하게 천년의 뒷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이로서 보건데 벗은 반드시 현재의 세상에서 찾아야 함이 명백한 것이다. (박지원, <회우록서>)

연암에게는 관념적인 우정론보다도 현실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친구의 필요성, 즉 우정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써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같은 서양 우정론의 유입이다. 『교우론』은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595년에 쓴, 우정에 관한 서양의 격언과 일화를 소개한 책이다.

朋友를 말하는 사람들은 봉우를 제 2의 나라 일컫기도 했고, 周旋人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자를 만든 자가 날개 꺾자를 빌려 벗 朋자를 만들었고 손 手자를 겹쳐서 벗 友자를 만들었으니 봉우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박지원, <회성원집발>)

친구를 '제2의 나'로 표현한 것은 교우론 1장의 내용이고 친구를 글자의 유래설도 교우론 56장의 주석에 나온다. '벗은 나의 (영혼의) 반쪽이다.'라는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벗은 제2의 나이다. (그러므로 벗을 자기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온다. 마테오 리치가 이처럼 다양한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러한 서양인의 사유는 조선의 지식인에게는 무척이나 참신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五倫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나'와 '自己愛'에서 출발하여 그 延長으로서 벗과 우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나쁜 벗 사귄과 좋은 벗 사귄

젊은 시절인 2·30대에 박지원 박지원은 상당수의 단편소설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우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마장전>과 <예덕선생전>이다.

<마장전>은 거리의 부랑아이자 걸인들인 송옥, 조탑타, 장덕홍이라는 세 친구가 광통교 위에서 벗 사귄의 도리에 대해서 토론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당대 사대부들의 세속적인 우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이들은 당시 양반들이 내세우던 군자의 벗 사귄이란 실제로 권세,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추잡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에 양반들이 표면적으로는 초연한 척 하지만, 이면에서는 이를 독점하기 위해 고단수의 사교술을 쓴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을 칭찬하려면 먼저 책망할 것', '누구와 친밀해지고 싶으면 약간 소원하게 대할 것', '남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일부러 눈물을 흘릴 것'같은 위선적 행위들이다.

말거간꾼과 집주름들이 손벽을 치며 관중, 소진이 피를 마시고 맹세하던 것을 흉내낸다더니 그렇구나! (….) 그런데 콧마루에 부채를 가리고 양쪽 눈을 깜짝이는 따위는 말거간꾼 집주름들의 술수이다. (….)

“나는 차라리 세상에 친구가 없으면 없었지 군자의 벗 사귄은 하지 않겠다.”

이에 세 사람은 서로 갖고 옷을 찢어 버리고 때묻은 얼굴 더부룩한 머리로 허리에 새끼줄을 동이고 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사라졌다. (박지원, <마장전>)

이처럼 박지원은 당시 양반들의 벗 사귀이란 일반 평민들의 사귀 중에서도 아주 잡스럽고 속되며 속임수에 가까운 '말거간꾼의 술수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마장전>이 당대 양반들의 위선적인 벗 사귀에 대한 비판이라면, 신분을 초월한 참다운 벗 사귀의 도리는 <예덕선생전>에서 제시된다. <예덕선생전>은 '선굴자에게 벗이 있으니 예덕선생이다'라고 시작한다. 선굴자는 선비이고 예덕선생은 서울에서 민가의 인분이나 가축들의 똥을 수거하여 서울 교외지역에 저 나르는 똥지계꾼 엄행수이다. 선굴자의 제자 한 사람이 자기 스승이 똥지계꾼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선굴자가 평소에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름난 선비나 벼슬하는 관료와 사귀지 않고 하필이면 천민인 똥지계꾼과 사귀느냐고 항변한다. 이에 대한 선굴자의 대답이다.

엄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매어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이를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 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聖人)도 될 수 있을 것일세.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그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박지원, <예덕선생전>)

< >의 결말부이다. 엄행수는 외양의 멀끔함 보다는 내면의 정갈함을 추구하여 진정한 윤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직분에 성실하며 건강한 노동을 유지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으라고 권하자, 그는 '소매 넓은 옷을 입으면 몸이 활발치 못하고 새옷을 입으면 똥을 지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직분에 맞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겠다는 태도이다. 얼마나 진실한 삶인가.

양반들의 생활이란 고결한 척 하지만 그것은 결국 민중들의 생산 위에서 구가되는, 다분히 위선적인 것이요, 반대로 서민들의 노동은 곧 생산활동이며 창조적이고 신성한 것이기에 오히려 의로운 활동이다. 엄행수를 예덕선생이라고 존칭하여 부르는 선굴자는 그야말로 양반사회에서 잃어버린 참다운 우정을 엄행수와와의 사귀를 통해 얻고 있으며,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서 평등한 윤리인 우정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3. 국경을 초월한 우정에 대한 예찬

1865년 연행을 떠난 洪大容은 북경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난 강남 출신의 과거응시생 嚴誠, 陸飛, 潘庭筠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이 때 함께 나는 필담과 편지가 한 편의 저작으로 탄생되며 세상에 알

되었다. 2월 한 달 간 7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홍대용과 엄성 등은 문자옥의 위험을 무릅쓰 양국의 역사, 인물, 문물제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때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고, 전에 없었던 격정적인 우정을 느끼며 이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특히 엄성이 임종할 때 홍대용의 편지를 가슴에 얹고 조선의 목향을 맡으며 최후를 맞이했다는 감동적 일화와 엄성의 부고가 8천리 밖 조선에 전해지고 홍대용이 보낸 제문이 삼년상이 끝나는 大祥날 저녁에 도착하였다는 기이한 일화까지 더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지식인 교유의 참다운 모범이 되었다. 이를 흔히 천애지기라고 한다. 天涯知己'란 직접 만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절친한 교유인물을 지칭한다.

이 특별한 우정에 대한 홍대용의 기록은 주변 인물에게 전파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완고한 반청론자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박지원과 이덕무, 박제가 등에게 영향을 끼치며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선도하였다.

연암그룹으로 칭해지는 이들은 홍대용이 소개한 청조 문물과 서구의 과학문명에 자극을 받으며 北學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한편, 수평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혁신적 교우론을 천명하며 조선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해외 지식인과의 교류를 갈망하게 되었다. 신분제의 질곡과 당파의 분열 속에서 갈등하던 이들에게 홍대용의 해외교유는 참다운 교유의 이상으로 각인되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통로이자, 조선의 폐쇄성을 돌파할 수 있는 숨통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이철희)

연암 박지원은 <회우록서> 첫머리에서 이 만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홍대용이 어느 날 갑자기 한 필 말을 타고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서, 시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너절할 골목을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항주(杭州)에서 온 선비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 한껏 토론하였는데, 고증하고 증명함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서로 충고하고 이끌어 주는 말들이 모두 지극한 정성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친구로 허락하였다가 마침내 결의하여 형제가 되었다. 서로 그리워하고 좋아하기를 여색을 탐하듯이 하고, 서로 저버리지 말자 하기를 마치 동맹을 맺기로 서약하듯 하니 그 의기가 사람을 눈물겹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박지원, <회우록서>)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 언어와 복색이 같아도 벗 삼으로 하지 않더니 왜 하필 언어와 복색이 다른, 그리고 다시 만나지도 못할, 만리 타국의 사람을 친구로 삼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홍대용의 답변은 신분과 당파에 얽매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사귄 수 없고 중국에서 사귄 세 사람은 비록 청나라의 복색과 체발을 하고 있지만 옛날 성인이 다스리던 중국 땅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볼 때 나 또한 오랑캐의 땅에서 왔지만 차별없이 대했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예절 따위는 타파해 버리고서 진정을 토로하고 간담을 피력'하다보니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암은 감격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맺는다.

“통달했구나, 홍군의 벗함이어! 내 지금이야 벗 사귀는 도리를 알았도다. 그가 누구를 벗하는지 살펴보고, 누구의 벗이 되는지 살펴보며, 또한 누구와 벗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내가 벗을 사귀는 방법이다.”

천애지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종이나 국적, 신분이나 언어 등 외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진정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한편 차이에 대한 인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끝없는 신뢰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것이다.